천길 벼랑 끝에서 춤추듯이 살자

(신명기 34:1~12)

1.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3.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7.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 일을 애곡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길 벼랑 끝에서 춤추듯이 살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길 벼랑 끝에서 춤추듯이 살자'

'벼랑 끝'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인생에서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급박하게 전개되어서 하는 수없이 몰리게 되는 곳이 벼랑 끝입니다. 이제 한 발만 더 밀려나게 되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서 끝장이 나게 되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될 때에 '벼랑 끝에 서있다'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 여야의 벼랑 끝 막판대치, 벼랑 끝에 선 부부관계 등이 있고, 좀 다르게는 임전무퇴의 정신과 불퇴전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벼랑 끝에 나를 세우자'는 말도 종종 합니다. 배수진을 치듯이 벼랑을 등지고 서면 한 걸음도 물러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의 난국을 정면 돌파하여 타개하려고 한다면 넘지 못 할 장애가 없다는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벼랑 끝은 일이 잘 안되고 삶의 형편에 쪼들려서 할 수 없어 서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혹은 스스로 그런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서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벼랑 끝에 서도록 피조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의 본래 자리가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벼랑 쪽을 보며 살도록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벼랑 끝에서 벼랑을 향해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못한 채 자유자재로 춤추며 사는 삶이 에덴에서의 삶이고 선민들에게 허락되어진 복지의 삶입니다. 진짜 기쁘고 만족하고 쉬지 않는 기도가 뜻하는바 대로 참된 열정과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샘솟는 에덴과 복지의 삶은 오직 벼랑 끝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벼랑 끝에서의 춤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인류는 벼랑 끝에서 피조 되었다가 타락하여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다시금 부름 받아 벼랑 끝에 서게 된 선민이 어떻게 해야 참다운 에덴의 의미를 회복하는 복지의 삶을 살 수 있는가가 신명기의 마지막장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벼랑 끝에서 떨어졌다는 것인데, 벼랑 끝에서 춤을 추며 벼랑 끝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오경의 마지막으로서 모세의 임종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금지하는 말씀이 언급됩니다. 언제나 이 본문을 대할 때에는 모세에 대해 '뭘 그렇게 까지 잘못 했을까?'라는 연민이 생기고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모세가 므리바 물 사건에서 단 한번 보여줬던 잘못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놓고 보면, 이들은 모세가 저지른 영적인 잘못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신앙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될 만큼 모세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았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신다.'는 덕담도 아닌 이야기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상으로는 열 번도 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물 설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잘못한 사건을 설교化 하시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대로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복지를 순간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빈번하고 가장 일상적인 잘못은 모세가 므리바 물 사건에서 보여준 것과 같다는 것인데 모세로서는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80세에 부름 받은 이후로 성경 상에 나타난 것으로는 단 한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은 부지기수인데도 언급하

지도 않으시고,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잘못을 계속 언급하시는 것은, 모세는 120살에 죽을 때까지 성경 상에 나타난 잘못이 그것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이용하셔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잘못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것만 피하면 복지가 유지될 수 있다'는 설교를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끝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는 찰나에, 모세의 임종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모른척하고 군중 틈에 섞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봐서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는 이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살아야 복지의 삶을 잃지 않을 것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본질적 잘못은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벼랑을 향해 서있다면 앞으로는 반 발자국도 내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로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낙원의 삶으로서 주어진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에덴을 회복한다는 의미의 복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서게 된 아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벼랑 끝 천 길 낭떠러지에 난간을 세워두셨는데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난간을 넘는 것이고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생각해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에 아담은 여전히 벼랑 끝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벼랑 앞의 허공에서 하와를 붙잡아 아담 앞에 내밀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와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사람, 일, 상황은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허공 위에 떠 있는 영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담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이 하와에게 가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와의 생김새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내게 필요하고 아니고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될 때에 마음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중에 떠 있는 내 앞에 있는 하와와 어떻게 관계해야 할까요? 벼랑을 향하여 벼랑 끝에 서있는 사람에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 여유는 위 밖에 없습니다. 뒤는 내 삶의 영역이 아닙니다. 앞의 허공에 뜬 대상과 관계를 맺으려면 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위로 가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보니, 하나님이 느끼고 생각하시는 하와의 정보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을 만날 때에 두 가지 방식 중에 생각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날 때에 내 마음이 접촉하여 느끼게 되고, 그 느낌을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내 안에서 그 사람과 상황을 재창조하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기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재창조를 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

나면 내 눈 앞에 펼쳐진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느낌과 판단과 생각을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앞으로 나가면 선악과 난간을 뛰어넘어 벼랑 끝으로 떨어져서 에덴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만날 때에 기쁨이 없고 걱정과 근심만 생긴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복지가 상실된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나에게 있어서 내 눈 앞에 있는 자녀는 허공에 있는 것입니다.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은 마치 필름을 영사기로 돌려서 자막에 영상이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실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십니다. 내가 자녀와 관계할 때 직접 자녀에게 접촉해서 느끼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면 자녀를 재창조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느끼면서 판단하고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아주 나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거나 '지금 아주 훌륭하다'라는 것은 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 봐야만 자녀가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이 안 벌리고 사업은 망할 위기인데 마음이 직접 그 상황에 닿아서 판단을 한다면, 그 사실을 내가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낸 상황을 내가 관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근심걱정과 염려로 휩싸이게 되고 잘못된 희망에 속아 생기는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나중에 그 기쁨이 거품인 것을 알고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에덴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모세에게 적용되는 것은 므리바 물 사건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으니 좀 목이 마르더라도 참고 기다릴 것이지 불평을 하면서 애굽에서 왜 끌어냈고, 차라리 조상들이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좋을 뻔 했다는 등 난리를 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듣지만 반석을 두 번 치면서 백성들을 향해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곧바로 개입하셔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벼랑 끝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서 있었지만, 모세의 마음이 그것에 직접 닿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판단하고 대응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벼랑 끝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복지의 삶으로부터 떨어져나갔다는 것을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은, 80세에 부름 받은 이후로는 므리바 물 사건 외에는 전부 벼랑 끝에서 하나님과 밀착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고, 사실상 이미 광야에서 복지를 살았습니다.
복지와 에덴의 정의는 하나님과 틈새 없이 밀착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지가 되는 것이지 땅에 비옥해서 복지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을

복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리바 물 사건을 크게 부각시키시며 복지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아담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 실물 설교를 하시는 것인데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허공에 뜬 채로 내 앞에 나타나 있지만 이것들의 실재의 모습은 내 마음이 닿아서 느끼고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실 때에도 처음부터 그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저주할 것을 알고 계셨는데도 함께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예수님 앞에 모으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서 한 발자국도 마음의 발을 내딛지 않으시며 참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은 삼십에 당신을 팔게 될 가룟 유다도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던 것인데, 가룟 유다와 당신 사이에 벼랑의 허공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이 벼랑에 발을 내디뎌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복지의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절대로 직접 닿고 느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벼랑 끝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21:17절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실 때 21:21절에 "이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친했습니까? 어떻게 될지 말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둘의 사이를 벼랑으로 딱 가르시면서 '너는 벼랑 끝에 있고 네 마음은 요한에게 발을 내디뎌서 요한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판단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시면서 21: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십자가 생활화의 틀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요한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는 벼랑 끝에 서 있으므로 요한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요한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려고 하지 말고(요한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요한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느끼고 판단하여 만들어낸 요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시는 요한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유자재로 모든 춤사위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는 요한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서의 내 몸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자유자재의 춤사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의 배우자를 만나도 벼랑 끝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부부관계에 기쁨이 사라지는데 에덴이 사라집니다. 복지로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지만 나는 벼랑 끝에 있고 사업은 벼랑 끝 허공에 떠 있는 것입니다. 내 눈 앞에서 보이는 모든 사람, 모든 대상, 모든 상황, 모든 사건들의 참 의미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아두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영사기의 영상처럼 드러내신 것들이 지금 내 눈 앞에 보이고 있을 뿐이기에 그것들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못 되게 보였어도 마음이 닿아서 느낌과 판단을 하면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못된 짓을 했어도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닿았던 것이고,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악과 대신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모든 대상들 앞에서 내 마음이 눈에 보이는 대상보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 대신에 슬픔과 걱정과 염려 우울로 뒤바뀌는 타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복지 밖으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눈앞에 무엇이 보일 때마다 먼저 십자가를 마음으로 보면 마음이 벼랑 끝에서 주님 따라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이제부터 내 몸은 한 발을 벼랑 끝에 딛고 다른 발은 허공을 빙- 회전하면서 자유자재의 춤사위로 덩실 덩실 춤을 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벼랑 끝에서 정말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춤사위로 자유자재로 춤을 추며 살아가는 복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마음으로는 한 발자국도 벼랑 앞으로 발을 내딛지 않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벼랑 끝에서 자유자재로 춤추는 복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